



김윤이 작가의 그림책 '북한산 초록'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만나는 전시회가 갤러리포도나무에서 열린다.

###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순천만의 풍광을 담은 그림책 '순천만'의 김윤이 작가는 서울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그녀가 6년에 걸쳐 제작한 '북한산 초록'(초판 책방)은 '한 자리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풍경'을 그려낸 책이다. 그림책을 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문득, 제작 과정과 아이디어의 처음이 궁금해진다.

최근 들어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책 읽는 어른들도 늘었다. 올해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문학상을 수상하고 2020년 백희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강좌도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한 권의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북한산 초록-김윤이 원화전'이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에서 열린다. 책이 결과물로 나오기까지의 꼼꼼한 준비과정과 '어린책출판·보급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공간'인 초판책방 신경숙 대표와의 협업을 소개한 전시이기도 하다.

갤러리에서는 '북한산 초록'의 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림책 장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전시장은 운동 초록빛이다. 초록으로 그려진 원화를 비롯해 그가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색상표, 드로잉, 그림 시안 등 수많은 초록색들이 가득하다.

'북한산 초록'은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의 짝막한 글 이외에 2월부터 9월까지 변해가는 '초록'의 모습만이 15장의 그림에 담겼다. 그림책을, 마치 화집처럼 넘기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김윤이 작가 '북한산 초록'

아이디어부터 책 출간까지 작업노트, 드로잉, 원화 등

27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 전시

그림책 제작 꿈꾸는 이들에 도움



다른 웃으로 잡아입는 초록이 눈길을 붙잡는다.

책은 "겨울 내내 검은 초록과 바위뿐이던 북한산"에 "노란 연꽃빛 초록들이 생겨나고, 뜨거운 여름엔 싱싱하게 빛나는 초록"이 되었다가 "울긋불긋한 색으로 물들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검은 초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의 책상에 놓인 자료는 그림책을 제작해 보려는 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책으로 완성되는 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작업노트와 드로잉 노트, 참고자료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김 작가는 '색'을 테마로 삼아 지속적으로 초방 공부 모임에 참여했고, '하늘색과 물색에 집중'해 그림책 '순천만'을 펴냈다. 이후 '초록 산 파랑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 6년의 시간을 거쳐 '북한산 초록'을 완성해냈다. 가로로 길게 펼쳐져, 북한산의 모습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독특한 판형을 확정하고 색상표를 책장에 붙여두고 술한 '초록'을 찾아갔던 과정 등 책 제작과정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저자가 신경숙 대표의 권유로 세잔과 그가 평생 그랬던 '생 빅투와르산'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이 담긴 작가 노트도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는 다음 책으로 준비중인 '북한산 프로젝트' 시즌 2의 작업물도 일부 엿볼 수 있다.

정현주 갤러리 포도나무 큐레이터는 초대급에서 "초록의 변화만으로도 책은 산의 아름다움을 깊이 흠모하는 소박한 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로서 스스로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월·화·수, 오전11시~오후 6시. 문의 062-655-7900.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대의 명저들 한자리에

ACC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선'... '단순한 열정'·'기탄잘리' 등

타고르의 '기탄잘리',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이 시구로의 '남아 있는 날들', 모엔 '붉은 수수밭'... 위에 언급한 작가와 작품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과 그들의 대표 작품들이다.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은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문학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손색이 없다.



1968년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1994년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의 대표작 '만연년'의 '꽃' 등 일본 작가를 비롯해 2000년 중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가오싱젠의 '영혼의 산'도 준비되어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고전으로 사랑받는 이들의 작품도 있다. 예이츠(1923년), 유진 오닐(1936년), 헤르만 헤세(1946년), 알베르 카뮈(1957년) 등의 작품은 여전히 독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명저들이다.

한편 ACC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서 40여 권도 함께 전시한다. 베트남 관련 국내 대표 전시 도록 '베트남 육애도 문화', '대항해시대 바닷길에서 만난 아시아 도자기', '붉은 강의 새벽' 등이 그 책들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프라노 '4인4색 평화음악회'

김선희·이환희·류현수·신은정, 15일 금호아트홀



김선희



이환희



류현수



신은정

개성이 다른 4명의 소프라노 각자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마련됐다.

소프라노 김선희와 이환희, 류현수, 신은정이 함께하는 '4인4색 평화음악회'가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여성소리스트양상불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아름답고 평화, 안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해설은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조창후 교수가 맡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평화와 치유'라는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화상, 슬픔과 갈등, 위로, 희망과 기쁨 등 4개 가치를 노래한다.

먼저 4명의 소프라노가 함께 부르는 윤학준 '마중'으로 공연의 막을 올린다. 이어 김선희가 김효근의 '첫사랑', 류현수와 신은정이 최진의 '시간이 기대어'를 부른다. 다음으로 비제의 '사랑은 다루기 힘든 새와 같은', 알프레도 카탈라니의 '그렇다면 멀리 떠나겠어요'를 선사한다. /김디민 기자 kdi@kwangju.co.kr

또 모차르트의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와 생상스의 '그대 음성내 내 마음 열리고'가 펼쳐지며 이환희가 김효근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노래한다.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뱃노래',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드보르작의 '달에게 부치는 노래'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곡은 4명이 함께 부르는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이다.

김선희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음악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환희는 뒤셀도르프 국립오페라과 석사를 졸업한 뒤 광주여성소리스트 양상불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류현수는 독일 뮌헨 국립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뒤 한세대 예술학부 성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신은정은 이탈리아 레 만프레디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정윤성 음악제를 비롯해 각종 국제 초청연주회에서 활동했다. 전석 1만 원. 예매는 전화 또는 문자(010 2584 2160)로 가능하다. /김디민 기자 kdi@kwangju.co.kr

## 서유나 초대전, 30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a festive day' (부분)

## 어딘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새들...

서유나 작가는 '생명력'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왔다. 생명을 길어올리는 희망도 주된 테마였다. 작업 초기 즐겨 그렸던 꽃과 나비는 그런 주제를 표현해내는 적절한 소재였다. 이후 그의 작업에선 '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좀 더 자유롭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의 생명력을 화면에 풀어내며 전진하는 중이다.

서유나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열린다.

'A Festive Da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1000호 대작 2점 등 모두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속 새들은 어딘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하나의 화면에 여러 시공간이 중첩적으로 등장하면서 환상적인 모습도 만

들어낸다.

이번 전시에서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1000호 대작은 검은 바탕 위에 흰색 두루미떼가 비스무리한 모습을 단순화한 선으로 처리했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하늘을 나는 새들은 다양한 형태로 겹쳐지고, 얽히면서 추상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실적 묘사보다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었던 서 작가는 앞으로는 추상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새들의 움직임 아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격자 무늬는 '생명의 움직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형적 장치다. 새의 필릭하는 움직임과 파동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리듬감과 율동감을 부여한다.

전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대학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서 작가는 지금까지 1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10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서 작가는 한국화특강대원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라북도미술대전에서 여러차례 특선했다. 현재 AFI(아트포럼인터네셔널), 국제남부현대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전시 해설을 쓴 윤의 평론가는 "서 작가의 작품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화면에 공존하고 있고, 자유로움을 꿈꾸는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한편 서 작가는 이번 초대전을 맞아 작품 세계를 다룬 영문 도록도 함께 발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브람스, 빛의 화가를 만나다' 듀오 콘서트

1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브람스, 빛의 화가를 만나다' 듀오 콘서트 세번째 이야기가 1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낭만주의 시대 절대 음악 작곡가로 알려진 브람스의 곡을 연주한다.

공연에는 독일 바이마르 국립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윤소희와 뉴욕 주립대 스톤브룩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광주시립교향악단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소프라노 이승희, 파리고등학교 음악원 최고교육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반수진이 함께한다.

무대에는 먼저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를 올린다. 다음으로 '여름밤', '연인에게 가는 길', '나의 사랑은 초록', '영원한 사랑', '나를 사랑하는 멜로



윤소희



이승희

디처럼', '소녀가 말하기를', '오월밤'을 노래한다. 이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첼로로 편곡해 연주하며 거곡 '내 잠은 점점 깊어가고'를 이은주가 연주한다. /김디민 기자 kdi@kwangju.co.kr